

일제하 평양지역의 기독교적 전통과 송실대학

한규무*

- I. 머리말
- II. 평양의 기독교적 전통
- III. 송실대학·송실전문의 설립과 교육
- IV. 송실대학·송실전문 학생들의 활동
- V. 맺음말

I. 머리말

송실대학교에서는 설립 90주년과 100주년을 맞아 방대하고 충실한 교사(校史)를 간행한 바 있다.¹⁾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송실대학 출신들을 정리한 저술도 있다.²⁾ 그리고 유명렬 명예교수는 송실대의 특징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 민족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진실한 민족대학, 전도계몽활동과 농촌진흥운동에 앞장선 진정한 기독교대학, 과학기술교육을 중요시한 진취적 미래지향 대학”이라 적절히 정리했다.³⁾ 이처럼 ‘근대’·‘민

* 광주대학교 교수

- 1) 송실대학교90년사편찬위원회 편, 『송실대학교 90년사』, 송실대학교 출판부, 1987; 송실대학교 100년사편찬위원회 편, 『송실대학교 100년사: 1997-1997(전3권)』, 송실대학교, 1997.
- 2) 송실인물사편찬위원회, 『인물로 본 송실100년』,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2.
- 3) 유명렬, 『민족과 기독교와 송실대학: 송실-어떤 대학인가?』, 송실대학교 출판부, 1998, 7쪽.

족'·'기독교'·'미래지향'은 송실대의 역사와 특성을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 논문의 내용은 대부분 이같은 선행연구에 포함된 것들이나, 평양의 기독교적⁴⁾ 전통이 무엇이며 그것이 일제하 송실대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이를 위해 평양 기독교의 전통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 보고, 그것이 일제하 송실대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 어떤 활동으로 나타나는 지 알아볼 것이다.

1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각 분야에서 괄목할 업적을 남기고 우수한 인재를 길러낸 송실대의 특성을 밝혀내기에는 필자의 역량이 너무도 부족함을 절감한다. 많은 내용이 선행연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부디 이 논문이 기독교 명문사학 송실대의 위상과 특성을 일부나마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

II. 평양의 기독교적 전통

평양과 기독교의 '접촉'은 그 역사가 무척 길다.⁵⁾ 1884년 최초의 정주선교사(定住宣教師) 알렌(H. N. Allen)의 입국에 앞서 1866년 이른바 '제너럴서 먼호사건'으로 영국인 선교사 토마스(R. J. Thomas)가 '순교(殉教)'한 지역도 평양이었다.

평양에 진출한 선교회는 미국북장로회와 미국남장로회다. 일찍이 1887-1889년 북장로회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북감리회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수차 평양을 방문했다. 1893년 북장로회 마펫(S. A. Moffett)·리(Graham

4) 이 논문에서 '기독교'는 '개신교'를 뜻한다.

5) 평양을 포함한 평안도의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이 참고된다. 이광린, 『개화기 관서지방과 기독교』, 『한국개회사상연구』, 일조각, 1979; 서정민, 『평안도 지역 기독교사의 개관』, 『한국기독교와 역사』 3, 기독교문사, 199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북한교회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김진형, 『초기 한국감리교회 북한교회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부연회·한민족통일선교회, 1997.

Lee) · 스왈른(W. L. Swallen) 등은 한석진의 조력을 받아 평양에 선교기지를 개척했고, 같은해 북감리회 홀(W. J. Hall)도 평양에 진출했다. 그후 북장로회는 복음선교(장대현교회) · 교육선교(숭실학교 · 숭의여학교) · 의료선교(제중병원), 북감리회도 복음선교(남산현교회) · 교육선교(광성학교 · 정의여학교) · 의료선교(기흥병원)에 노력했다.⁶⁾

이처럼 선교사들이 평양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 북감리회 홀(W. J. Hall)은 북장로회 마펫의 견해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평양은) 조선에서 가장 더럽고 문란한 도시이며 사람들이 거칠어 돌로 때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최적의 선교 도전지이다.
2. 인구가 10만이 넘으며 사람들이 적극적이고 기업적이라 번성할 여지가 있다.
3. 서울과 북경간을 연결하는 육로이며 해상교통도 용이하다.⁷⁾

주민들이 “적극적 · 기업적”이며 교통의 요지란 대목과 함께 “더럽고 문란”하며 “폭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적의 선교지란 것이다. 선교 초기에 평양은 “한국의 소돔”⁸⁾ · “죄를 만히 짓는 고을”⁹⁾이란 오명을 얻기도 했으나, 기독교의 수용 이후 “한국의 예루살렘”¹⁰⁾이라 불릴 정도로 변화했다.

평양에서는 장로회와 감리회가 함께 선교활동을 펼쳤는데, 이같은 지역은 서울과 평양뿐이었다. 이는 1900년대 장로교 · 감리교 선교회 사이에 이뤄진 ‘선교지역 분할협정(敎界禮讓)’에 따른 것이었고, 그 결과 평양에서는 두 교파가 선의의 경쟁을 펼쳤지만 때로는 연합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그같은 사

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개정판)한국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2011, 204쪽.

7) 셔우드 홀(김동열 역), 『닥터 홀의 조선회상』, 동아일보사, 1984, 89쪽.

8)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73, 221쪽.

9) 『그리스도신문』 1898.05.19 『교회통신』.

10) 이광린, 『평양과 기독교』, 43쪽.

례로 교육선교 분야에서는 1906년 미북장로회와 미북감리회 연합으로 숭실 학교 대학부, 즉 숭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을 설립했으며, 1912년에는 남장로회가 참여했다. 의료선교 분야에서는 1920년 제중병원과 기흥병원이 평양연합기독교병원(Pyongyang Union Christian Hospital)으로 통합되었다.¹¹⁾

초기 한국의 기독교 성장은 놀랄 만한 것이었는데, 특히 서북지방이 그러했으며 그 중심이 평양이었다. 이에 대해 어느 선교사는 1898년 “북쪽의 교회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넘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침투되고 있다. 교회는 불빈다. 기회는 무한하다”¹²⁾라 보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빠른 성장의 이유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순수한 신앙적 동기”·“성경의 번역과 보급”·“한국의 종교혼합 현상” 등이 거론된다. 또 유식계층은 개화와 구국의 방편으로, 민중계층은 관리의 탐학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례가 많다는 분석도 있다.¹³⁾

특히 서북지방의 경우 “고식적인 유교전통에 덜 젖어 있었고”·“정권참여에서 소외되어 있어서 주자학을 기반으로 한 당시의 체제에 강한 반발을 느껴왔었다”거나 “청과의 교역관계 등으로 상업활동이 비교적 일찍부터 전개된 지역이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결부시키는 데 민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설명하기도 한다.¹⁴⁾

서북지역 주민들의 자립성과 진취성을 이유로 꼽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베어드(Wm. M. Baird)는 “북쪽지방에는 자립적 중산층(Independent Middle Class)이 우세하기 때문에 희망에 넘쳐 있다”¹⁵⁾고 서술했으며, 평양주민들은 기질이 진취적(“優於進取”)이라는 기록도 있다.¹⁶⁾ 또 이들은 다음 논설에서

1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개정판)한국기독교의 역사 I』, 167쪽.

12) *The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898, p.158.

13)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한국기독교수용사연구』, 두레시대, 1998, 461-465쪽.

14) 위와 같음.

15) *The Independent* 1897.5.20: 이광린, 『개화기 관서지방과 기독교』, 245쪽.

보듯이 구습을 타파하고 신학문을 수용하는 데도 적극적이었으므로, 서양의 종교와 문화가 비교적 빨리 이식될 수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我韓全國이 凡十三道에 京城以外는 惟平安一路가 最先開明하여 新立之學校가 相望하고 新學之教育이 苑興하여 彬彬然文化之發達이 頗可觀하니 蓋平壤은 本三姓之故都오 箕師之遺墟라 其人民이 皆有勇敢前進之性格故로 於變化舊習하며 開進新學에도 比他道에 最銳하여 所以爲各道之先矛하니 風土之關於開發이 豈淺尠乎哉아¹⁷⁾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 러일전쟁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이들 전쟁의 격전지가 바로 평양이었기 때문이다. 전쟁의 와중에서 선교사들은 교인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했고, 청일전쟁 중 교회는 피난민 수용소 역할도 했다.¹⁸⁾ 그 결과 평양주민들은 기독교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마펫의 진술이다.

이 나라 전체는 (청일전쟁으로 인해) 오랫동안의 잠자던 극단적인 보수주의로부터 깨어났다. 확고한 근거가 닦여져 있는 교회는 그러한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교회는 후퇴함이 없이 꾸준히 그리고 신속히 성장했다.¹⁹⁾

이같은 전쟁기간 중 교회나 병원 입구에 십자기(十字旗)나 성조기(星條旗)를 게양하기도 했는데, 외국군도 이같은 교회나 병원에는 가해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기독교는 ‘강대국’의 종교이자 자신들의 ‘피난처’로 인식되기도 했다.²⁰⁾ 그 결과 청일전쟁·러일전쟁 직후 교세는 다음에서 보듯이 급격히 성장했다.²¹⁾

16) 박은식, 『평양과 개성의 발달』, 『西友』 9, 서우학회, 1907.8.

17) 『皇城新聞』 1906년 3월 28일 『(논설)賀大同書觀之設立』.

18) “S. A. Moffett’s letter to Ellinwood(1894.11.1).”

19) S. A. Moffett, “Some Evangelical Work”, *Quarto-Centennial Papers before Annual Meeting*, 1909.8.27, pp.2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북한교회사집필위원회 편, 『북한교회사』, 64쪽에서 재인용.

2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개정판)한국기독교의 역사 I』, 214쪽.

〈표 1〉 장로교·감리교의 교세변화(1888-1906)

연도	장로교		감리교					
			미감리회			남감리회		
	세례	총계	세례	학습	총계	세례	학습	총계
1888	-	-	11	27	38			
1889	-	-	9	36	45			
1890	-	-	-	-	0			
1891	15	-	15	58	73			
1892	-	-	-	-	0			
1893	-	-	68	173	241			
1894	40	-	68	167	235			
1895	180	-	122	288	410			
1896	2,000	-	223	588	811			
1897	2,344	6,800	305	1,074	1,379	48	108	156
1898	2,800	7,500	556	1,502	2,058	-	-	-
1899	3,426	9,364	649	1,967	2,616	-	-	-
1900	4,000	13,569	792	3,105	3,897	-	-	-
1901	7,481	14,784	948	3,820	4,768	492	157	649
1902	6,167	19,327	1,296	4,559	5,855	454	377	831
1903	6,468	24,971	1,616	5,299	6,915	492	472	964
1904	6,946	26,554	2,006	4,979	6,985	611	392	1,003
1905	8,431	37,407	2,457	5,339	7,796	751	457	1,208
1906	12,161	56,943	2,810	9,981	12,791	1,217	1,117	2,334

이처럼 1888-1893년 완만히 증가하던 교인수가 1894-1896년 급증했다. 특히 장로교는 1895년 180명이던 세례교인이 1896년 2,000명으로 10배 이상 성장했다. 이같은 현상은 1905-1906년에도 재연되어 1906년 이후 장로교는 56,000명, 감리교는 1,2000명 이상의 교인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가 1년 전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청일전쟁·러일전쟁이 교인 증가의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의 통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이같은 현상은 전쟁의 격전지인 평양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을 것이다.

2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개정판)한국기독교의 역사 I』, 213쪽 [표5-2].

한국에 진출한 각 교파 선교회들은 한결같이 교회·학교·병원을 설립하여 복음선교·교육선교·의료선교를 병행했다. 따라서 기독교의 수용과 함께 신학문이 전파된 것은 전국적 현상이었으나, 백범 김구가 “평안도는 물론이고 황해도에도 신교육의 풍조는 예수교로부터 계발”되었으며, “당시 애국사상을 지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교 신봉자”²²⁾라 했듯이 서북지역에서 더욱 그러했다.

1898년 미국북장로회의 보고를 보면 평양 및 인근에는 서울보다 많은 13개의 학교(남학교 11개/여학교 2개)가 설립되어 있었다.²³⁾ 이는 1910년 다음과 같은 전국 관공립·사립학교 통계에서도 확인된다.²⁴⁾

〈표 2〉 각지의 관공립·사립학교(1910.07.01)

지역	관공립				준공립	사립					합계
	전문	고등	실업	보통	보통	고등	실업	보통	각종	종교	
한성	4	2	3	9	1	1	2	1	67	23	109
경기	-	-	1	6	12	-	-	-	139	44	202
충북	-	-	-	2	4	1	1	1	40	7	53
충남	-	-	-	4	3	-	-	2	67	17	93
전북	-	-	2	4	2	-	-	4	41	30	83
전남	-	-	2	5	7	-	-	14	19	7	54
경북	-	-	1	4	4	-	-	4	65	72	150
경남	-	-	2	7	4	-	1	6	74	17	111
황해	-	-	-	2	7	-	-	-	102	149	260
평양	-	1	1	3	6	-	-	3	159	255	428
평북	-	-	1	4	5	-	1	-	251	115	377
강원	-	-	1	3	5	-	-	-	33	4	46
함남	-	-	2	3	9	1	-	2	171	15	203
함북	-	-	-	3	4	-	3	-	54	-	64
계	4	3	16	59	73	2	7	36	1,282	755	2,233

22) 김구(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2002, 185-186쪽.

23) 『그리스도신문』 1898년 11월 3일 『장로교회 년환회』.

24) 『대한제국관보』 1910년 8월 13일 『(회보)學事』.

이같이 평남의 종교계 사립학교수는 255개로 전국최다였으며, 전체학교수도 428개로 그러했다. 종교계 사립학교의 대부분이 기독교 계통이었을 것인데, 평남의 255개는 당시 전체학교수 2,233개의 11.4%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다. 이는 서북-평남-평양 기독교인들의 교육열과 “최초의 근대대학”이 평양에 설립된 이유를 짐작케 한다.

평양교인들은 학교를 설립할 때 선교회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컨대 1897년 평양 사창골교회 교인들은 학교건축을 위해 은전 60여원과 엽전 100냥을 모금했고,²⁵⁾ 1908년 장대현교회에서 서문밖소학교를 증축할 때 교인들이 1,000여원을 의연하여 19간 기와건물을 건축했다.²⁶⁾ 1897년 서문안교회를 방문한 북감리회 스크랜턴(W. B. Scranton)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목격했다.

남녀회원 수백명이 일심으로 협력하여 큰 레터당을 덩서 모양으로 지었는디 간수는 십륙간이나 되고 유리등을 좌우로 여섯기를 다랏시며 또한 아희들 교육하기를 위하여 새로 학당을 설립하고 하느님씨 레터함과 으희들 교육하기를 날로 힘쓰는디 이 회당과 학당을 지을 때에 서양목스의 돈으로 지은 거시 아니라 본국교우들이 각각 연보하기를 힘쓰고 돈이 엽는 사름들은 몸으로 가서 역스를 진심것 하여 일을 일 위게 하였시니 ...²⁷⁾

외적인 교세성장은 물론 내적인 신앙의 성숙도 평양 기독교의 특성이었다. 특히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의 열기는 같은달 기독교계 학교에도 미쳤다. 평양에는 송실대학을 비롯하여 송실·송덕·광성 등 기독교계 학교가 많았으며 학생만도 2,500명이었다. 이들은 부흥운동 기간에 수업을 중단하면서까지 사경회와 기도회에 참석했으며, 매주 일요일은 그룹을 지어 평양시내와 인근촌락에서 전도활동에 나섰다.²⁸⁾

25)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03.17 「회중신문」.

26) 『그리스도신문』 1908.02.26 「(교회통신)평안도 평양 서문밖소학교(주공삼)」.

27) 『조선크리스도인회보』 1897.11.17 「평양교회」.

감리회 노블(W. A. Noble)은 “최근 부흥운동 기간 동안 우리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회개와 참회를 경험했으며, 사실 부흥운동은 학생집단에 가장 크게 현시되었다”²⁹⁾ 보고했으며, 숭실대학의 베커(A. L. Becker)는 1907년 2월 개학하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그해 가장 중요한 특징은 봄 학기 초에 발흥했던 부흥운동이었다. 2월 학교가 개강하기 바로 직전 장로교 (겨울 남자) 사경회에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학교에도 그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위해 이미 도착한 교사들과 학생들을 모아 오후 및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다. 바로 첫 집회 때부터 성령께서 현시하셨음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거의 모든 교사들이 학교가 개강하기 전 성령의 불을 경험하였다. 학생들이 등교한 다음 우리들은 평상시의 수업시간표를 일시 중지하고 오전·오후·저녁을 통하여 성경공부 및 기도회의 특별시간표를 마련하여 실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우리들은 그저 학생들의 감정을 흥분시키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다만 예수의 십자가에 마음을 모으기에만 노력하였다.³⁰⁾

베어드의 보고에 따르면, 1907년 11월 현재 숭실중학·숭실대학 신입생 255명을 받아 전체학생이 367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1906년 신입생 16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³¹⁾ 부흥운동이 교육운동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는 교육이야말로 “능히 나라와 빅성을 이롭고 편히게” 하고 “부강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에서였다.³²⁾

한편 서울이 아닌 평양에 1901년 장로회신학교(이하 ‘평양신학교’)가 설립

28) “The Spirit among Pyeng Yang Students”, *Korea Mission Fields*, 1907.7, pp.65-6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개정판)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32쪽.

29) *Minutes of Korea Miss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7.6, pp.49: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생명의말씀사, 2000, 271쪽.

30) A. R. Becker, “The Revival”, *Korea Mission Field*, 1908.6, pp.84: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272-273쪽.

31)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465-466쪽.

32) 『예수교신보』 1908.11.15. 『쇼학교육의 요지』: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466-467쪽.

된 점도 주목된다. 1901년 북장로회에서 설립한 이 신학교는 1906년 남장로회·호주장로회·캐나다장로회 등도 운영에 참여하는 연합신학교(Union Theological College)로 발전하면서 한국 장로교 신학의 본산이 되었다. 장로교 신학을 가르치는 각 장로교 교파 선교사와 배우려는 각지의 학생들이 평양에 집결함으로써 평양은 기독교 역사·교세·신앙뿐 아니라 신학 분야에서도 굴지의 지역이 되었다.

한편 평양의 기독교인들은 대한제국기 항일운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예컨대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평안도의 기독교인들이 상동감리교회에 모여 그 무효를 주장하는 복합상소와 가두연설에 참여했는데, 그들의 출신지에 대해 김윤식은 “平壤敎人”·“平安道敎人”³³⁾이라 기록했다. 또 상동청년회 전덕기와 정순만이 “平安道 壯士 數十人”을 모아 ‘을사오적’을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는 기록도 있다.³⁴⁾ 또 이 기간에 숭실학교 학생 12명도 서울에서의 을사조약 반대시위에 참여했다.³⁵⁾

이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이전의 상황이기는 하나, 같은해 결성된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에 평안도 기독교인들이 대거 참여한 점이나, 1911년 일제가 조작한 ‘105인사건’으로 기소된 123명 중 평안도 출신(거주)이 116명, 이 중 평양 출신(거주)이 27명이었던 점으로도 이 지역 기독교인들의 항일의식을 짐작할 수 있다.³⁶⁾

그렇다면 당시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유에서 민족운동에 참여했던 것일까.³⁷⁾ 기독교 민족운동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가 있고 그 이유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있는데, 일찍부터 선교사들이 교인들에게 ‘충군애국(忠君愛國)’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사실 ‘민주공화국’이 조국인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의 ‘전제군주제’를 진

33) 金允植, 『續陰晴史』(국사편찬위원회, 1967), 165쪽.

34) 鄭喬, 『大韓季年史(하)』, 국사편찬위원회, 1967, 191쪽.

35) 숭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436쪽.

36)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73쪽 <표3>, 89쪽 <표9> 참조.

37) 초기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이만열, 『한말 기독교인의 민족의식 형성과정』 및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개정판)한국기독교의 역사 I』, 253-283쪽 참조.

심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기독교가 ‘무군무부(無君無父)’의 종교란 세간의 오해를 불식시키면서 동시에 원활한 선교를 위해 국왕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교사들은 ‘정교분리’를 표방하면서도 때로는 ‘정치적’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예컨대 1897년부터 고종의 생일인 ‘만수성절(萬壽聖節)’을 맞아 기독교인들이 기념식을 거행했는데, 이는 북장로회 언더우드와 북감리회 아펜젤러가 주도했다. 그리고 이때 교회 입구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별도의 경축식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로마서 13장 등을 인용하며 고종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천명했다.³⁸⁾

하지만 1905년 일본이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어 1907년 고종을 폐위시켰으며, 1910년 한국을 병탄하면서 상황은 점차 변화되었고, 더 이상 ‘충군애국’을 교인들에게 강조할 수 없게 된 선교사들의 입장은 난처해졌다. 그들은 한국교인들이 정치적 문제에 관심 갖지 않기를 희망했으며,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과 1909년 백만명구령운동의 이면에는 그같은 의도도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³⁹⁾

대부분의 선교사들에게는 ‘한국의 독립’보다는 ‘선교의 확장’이 더욱 중요한 과제였으며 이를 위해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절실했겠지만 한국교인들의 사정은 달랐다. 그들에게는 ‘신앙’ 못지않게 ‘민족’도 중요했고, 1880-1890년대 선교사들이 강조한 ‘충군애국’을 여전히 간직했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복벽주의적(復辟主義的) ‘충군’ 의식은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신앙’과 ‘민족’을 위해 싸우려는 ‘십자가 군병’들에게 ‘애국’은 불변의 목표였다. ‘한국의 예루살렘’ 평양에서 기독교 민족운동에 투신한 많은 인물들이 배출된 것은 이같은 이유로도 일부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38) 임선화, 『선교사의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인식』, 『전남사학』 17(전남사학회, 2000), 70-83쪽.

3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개정판)한국기독교의 역사 I』, 236-237, 244-245쪽.

Ⅲ. 송실대학송실전문의 설립과 교육

송실학교 대학부, 즉 송실대학의 설립에 대해서는 “평양 송실대학 곧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은 1906년 9월 15일에 설립되어, 1908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합방 이후 1912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재인가를 받게 되었다”⁴⁰⁾고 정리된 바 있다. 그리고 1925년에는 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송실전문대학(이하 ‘송실전문’)으로 개편되었다.

송실대학은 북장로회·북감리회의 연합교육기관으로 출발했으며, 그 명칭도 ‘합성송실대학(Union Christian)’이었다. 1912년 이후에는 남장로회·호주장로회·캐나다장로회도 참여했으며, 북감리회와의 연합은 1917년까지 지속되었다.⁴¹⁾ 교과는 다르지만 ‘선교’와 ‘교육’이란 공통목표를 갖고 연합한 것은 평양 기독교의 전통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비록 선교회에서 설립했지만 한국교인들도 여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한국교인들은 그들이 주체적으로 설립한 교육기관이 많지 않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서북지역에서 학교설립의 조짐이 보이자 이를 반기고 나섰다. 다음과 같은 기사가 그 점을 보여준다.

서울과 평양에 중학교가 잇스나 이는 다 외국인의 주관하는 바이오
우리 동포 가운데서 설립할 거슨 아직 업스더니 직금이 형테의 교육
에 힘씀이 서편 껏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엿스니 이는 주의 붉은 빛줄
나타냄이오 우리나라해 영광이라.⁴²⁾

물론 송실대학도 선교회에서 설립한 교육기관이었지만 평양교인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다. 그들은 전통적인 자립정신에 따라 능력과 형편에 맞

40) 유영렬, 『민족과 기독교와 송실대학』, 10-11쪽.

41) 송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송실편』, 131-132쪽.

42) 『그리스도신문』 1906.01.18 「의주리신(김창건)」.

게 그 설립에 일조했다. 다음은 그에 대한 기사이다.

음력 오월 초오일에 이곳서 대학당을 설립할 일을 의론초로 장디지 레배당에 모혀서 레비결츠를 흥흥논디 찬미호고 기도호 후에 방목스 연설호고 대한형태중 혼사람이 대학당이 엇더케 긴요호 쫓슬 연설호 후에 연보를 호는 신화 수빅원자리 던답을 밧친 사롬이 룡칠인이 되 고 후 칠팔빅원자리 집도 밧친 이도 잇고 민년 신화 오원식 내기를 세상 떠는 날까지 내기로 작당호 이도 만코 지목을 밧친 이도 잇고 시계를 밧친 이도 잇고 대못슬 여러근 밧친 이도 잇고 몸으로 품삭을 밧친 이도 잇고 후 신화 스오십원 일이삼십원 밧친 이도 만코 즈미들은 은퇴와 은지환과 은장도 밧친 이도 만스오니 그날 쥬를 위하야 여러 형태즈미가 열심쓰는 거슬 가히 알바로소이다. 당일 연보난 거시 신화 스천 수삼빅원이웁고 또 남북 평안도와 황해도 각처 교회에서도 이곳치 열심히 할 모양이오니 우리나라 대학교가 장춧 잘될 줄을 밧스은즉 여러 형태자미들은 대학교를 위하야 열심기도호시기를 브라는 이다.⁴³⁾

즉 평양교인들은 금전·가옥·재목·시계·대못·패물 등을 학교설립을 위해 의연했으며, 노동력을 대신 제공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당일 모금된 금액만 4천여원을 상회했다. 이처럼 숭실대학은 평양교인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받으며 설립되었다.

1912년 입학시험의 과목을 보면 성경·한문·이과·수학·일본어 등이었으며, 자격은 “중학교 졸업생 중 18세 이상 되어 세례받고 품행이 단정하며 건강한 자”였고, “본교회 직분의 천거서와 지방목사의 증거서와 중학졸업장을 제정”해야 했다. 그리고 1922년에는 영어·외국역사(일본사·서양사)가 추가되었다.⁴⁴⁾ 이로 미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졌고 소속교회 목사

43) 『그리스도신문』 1906.07.19 『평양리신(길장로)』; 『大韓每日申報』 1906.07.13 「(논설)賀平壤大學校設立」에도 비슷한 내용이 실려 있다.

44) 『예수교회보』 1912.08.13 『학도모집광고』; 숭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142-143쪽.

의 추천을 받은 세례교인에게만 입학이 허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26년 송실전문 입학안내(문과·이과)에는 시험과목은 일어·영어·역사·수학·물리·화학 등이며, 추천서나 세례교인 관련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일정학력을 가졌으면 신앙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입학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이같은 입학자격은 이후에도 유지되었다.⁴⁵⁾ 이는 자칫하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릴 위험도 있었지만, 비기독교인에게도 개방되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송실대학의 교과과정을 보면 1909-1910년에는 성경·수학·물리학·자연과학·역사학·인문과학(윤리학·철학·경제학·교육학·논리학·심리학)·어학(영어)·웅변·음악·토론 등이었다. 1912-1913년의 경우 인문과학과목은 심리학·교육학·윤리학·논리학·철학·사회학·종교사·기독교사 등이었다.⁴⁶⁾ 이로써 보건대 송실대학에서는 다양한 인문과학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했다고 짐작된다. 송실전문으로 개편된 이후 교과과정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1926년 성경·수신·일본어·일본문학·한문학·문학개론·영어·영문학·역사·사회학·심리학·윤리학·논리학·교육학·법제·경제·철학·생물학·천문학·음악·체육, 1934년 성경·수신·국어·국문학·한문학·조선어·문학개론·영어·영문해석·동양사·서양사·논리학·심리학·윤리학·동양철학·철학사·사회학·교육심리학·교수법·경제원론·법학통론·정치학·생물학·천문학·영국문학사·미국문학사·음악·체조 등이었다.⁴⁷⁾ 인문과학과목이 여전히, 이전의 어학 관련 과목에다 새로이 문학(일본문학·한문학·문학개론·영문학·영국문학사·미국문학사) 관련과목이 추가되었다. 이같은 교과과정은 송실대학·송실전문

45) 『동아일보』 1926.02.27 「(지방각중등교 입학안내)평양송실전문학교」; 『동아일보』 1929.02.14 「(금년입학안내)송실전문교」; 『동아일보』 1936.02.13 「(각학교 입학수지)송실전문학교」; 『동아일보』 1932.02.16 「(중학이상 남녀학교 입학안내)송실전문학교」.

46) 송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송실편』, 147쪽.

47) 『朝鮮教育要覽』(朝鮮總督府 學務局, 1926); 나송덕, 『송실전문학교』, 『대평양』 1(1934.11); 송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송실편』, 292쪽.

의 교육이 기독교 정신의 배양과 함께 인문학적 소양의 함양도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점에서 숭실대학·숭실전문은 일제강점기 인문학의 ‘산실’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며, 신학·문학·역사·철학 등 분야에서 많은 인재를 배출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인문학 교육과정은 졸업 이후에도 소중한 자산이 되었을 것이다. “(숭실전문) 문과출신 14명 중 약 반수는 기독교계 중등학교 교사로 내정되고 나머지 반수는 평양신학교를 희망”⁴⁸⁾한다는 기사처럼 교역자와 교원으로 진출하는 졸업생들이 다수였을 것인데, 이들은 인문학적 소양을 학창시절에 함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숭실대학(-1920)과 숭실전문(1926-1938) 문과 졸업생들의 직업분포가 참고된다.⁴⁹⁾

〈표3〉 숭실대학·숭실전문 졸업생의 직업분포

숭실대학 졸업생(?-1920)																
졸업생수	가사종사	유학	사립학교교원				서기	야소 교회 役事	사망	미상						
79	10	7	25				2	12	6	17						
숭실전문 문과 졸업생(1926-1938)																
졸업 생수	교 원	목 사	신 학	미국 유학	일본 유학	관 리	상 업	농 업	회 사	기 타	기 자	실 업 (축산)	농 장 (농회)	미 상	사 망	기 타
187	51	34	9	8	2	7	20	6	8	6	5	0	3	19	6	3

숭실대학 졸업생(?-1920) 79명 중 교역자¹²·교원²⁵이 37명으로 전체의 46.8%, 숭실전문 문과 졸업생(1926-1938) 187명 중 교역자³⁴·신학생⁹·교원⁵¹이 94명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한다. 즉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교인이나 학생들을 교육·지도하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다. 앞서 인용문에서 보듯

48) 『매일신보』 1936.02.01 『형설의 공을 마치고 사회로 나올 인물들』.
 49) 『教育私立各鐘學校狀況』(朝鮮總督府 學務局, 1920), 50쪽: 『회원명부』, 숭실교우회, 1938: 숭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260, 418쪽.

이 교원의 대부분이 기독교계 학교 소속이었을 것이다. 또 1925년 졸업생 19명 중 1926년 현재 목사③·신학생④이었을 정도로 교역자·신학생 비중이 높았다.⁵⁰⁾

그런데 졸업생들이 신학공부를 위해 진학하는 평양장로회신학교의 교과과정 중 교양과목⁵¹⁾의 비중이 매우 낮았는데, 이는 감리교 협성신학교의 그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었다.

〈표 4〉 평양장로회신학교 교과과정(1920)⁵²⁾

학년 및 학기 과목	하(下)학년		중(中)학년		상(上)학년		계
	춘기	추기	춘기	추기	춘기	추기	
신약	36	24	78	36	30	48	252
구약	48	24	24	36	36	24	192
신학총론	60	36	24	48	36	36	240
교회사기	24	36	36	26	24	48	194
설교학	24	24	24			24	96
도덕학		24					24
실제신학		24		12	24		60
교회정치·헌법				24	36		60
심리학상교수법			24				24
사회학						12	12
계	192	192	210	182	186	192	1,154

〈표 5〉 감리교 협성신학교 교과과정(1921)⁵³⁾

학년 및 과 과목	예비과		1학년		2학년		3학년		연구과		계	
	본과	별과	본과	별과								
일본어				3		3		2				8
영어	10		5			1	1	1				18
한문작문				2								2
문학	2		1	1	1				2	2	6	3

50) 숭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260, 419쪽.

51) 여기서 교양과목은 성경 및 신학 과목을 제외한 과목을 뜻한다.

52) 『신학교과정』, 『신학지남』 3-1, 신학지남사, 1920.4, 143-146쪽.

논리학			2	2							2	2
주일학교교육학			2								2	1
심리학					2	2					2	2
한국지리·역사	3										3	
성경지리·역사			2	2							2	2
성경	5		8	8	5	5	5	5	5	5	28	23
성경총론			2	3							2	3
교회역사					3	3	3	3	3	3	9	9
실용신학			1	1	3	3	3	3	3	4	10	11
조직신학					3	3	3	3	3	4	9	10
종교비교학					1	1				2	2	3
사회학·주일학교법					2	2	2	2	2	2	6	6
헬리어·히브리어					2		2		4		8	
장정					1	1	1	1			2	2
음악	2		2	2	2	2	2	2			8	6
계	22		25	25	25	26	22	22	24	22	118	95

협성신학교의 경우 다양한 교양과목도 전체의 46.6%를 차지하나 장로회신학교의 경우 도덕학·사회학 정도로 전체의 5.2%에 그치고 있다. 즉 평양장로회신학교의 교과과정만으로는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어렵고, 이 경우 설교나 목회가 사회현실과 유리된 방향으로 흐를 소지가 크다. 이같은 견지에서 볼 때 숭실대학·숭실전문의 교과과정은 한국 기독교계의 전반적인 사회의식을 높이는 데도 공헌했다고 생각된다.

숭실대학 졸업식은 장대현교회나 서문의교회에서 거행되었는데, 이를 전후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예컨대 1916년 제7회 졸업식의 경우 6월 10일 연설회(장대현교회)→11일 강도회(장대현교회)→12일 演興會(평양신학교)→13일 班日會(장대현교회)·운동회(숭실대학 운동장)·음악회(장대현교회)→14일 교장취임식·신구졸업생회(숭실대학)→15일 졸업식(장대현교

53) 『감리교협성신학교일람표』, 『신학세계』 7-1, 신학세계사, 1922.1, 103-105쪽.

회)·작별회(교장사택) 등의 일정이었다.⁵⁴⁾ 또 1924년 제15회 졸업행사 일정은 3월 8일 현상응변회(창동교회)→9일 졸업생예배(창동교회)→10일 졸업기념식수(송실대학)·운동회(송실대학 운동장)·음악회(서문외교회)→11일 전별회(송실대학 강당)→12일 졸업식(서문외교회)→오찬회(여자성경학원)→고별회(박원금교수 사택) 등이었다.⁵⁵⁾ 하지만 그 기간 중 불미스런 사건이 일어나면 졸업식을 취소할 정도로 학교당국은 학생의 본분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⁵⁶⁾

졸업생들은 1914년 졸업생들은 “학우간에 호상친목을 도호야 환난경복을 상구상하하며 교육의 진흥을 도호야 基本不贖은 학교에 대호야 器具等品을 보조기부하며 학자곤란은 학우에게 학비를 보조호는 등 제반을 실행호기로 목적”⁵⁷⁾하고 송실대학졸업생회 창립했다. 여름마다 전국의 졸업생들을 모아 하령회(夏令會)를 개최하고 결속과 친목을 다졌으며,⁵⁸⁾ 대강당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전국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⁵⁹⁾ 모교와 후배들에 대한 관심과 후원을 지속했다.

IV. 송실대학·송실전문 학생들의 활동

송실대학·송실전문 학생들은 재학 중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쳤는데, 특히 1921년 조직된 학생기독교청년회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해서는 『100년사』에서 전도·음악·문예·체육 등으로 분류하여 상세히 언급했으므로,⁶⁰⁾ 여기서는 개략적 설명에 그치고자 한다.

54) 『매일신보』 1916.06.17 「송실대학졸업식」.

55) 『동아일보』 1924.03.11 「평양숭대졸업식」.

56) 『동아일보』 1924.03.18 「평양숭대 졸업증지」; 『동아일보』 1924.03.20 「술먹었다고 卒業狀 주어」.

57) 『매일신보』 1914.08.12 「졸업생회」.

58) 『시대일보』 1925.07.07 「송실대학졸업생하령회」; 『시대일보』 1926.06.24 「송전졸업생하령회」.

59) 『동아일보』 1925.07.24 「모교대강당 건축을 결의」.

숭실대학 전도대는 숭실대학학생기독교청년회가 중심이 되었는데, 주로 방학기간을 이용했다. 그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숭실대학 전도대의 활동(1909-1923)⁶¹⁾

연도	지역	연도	지역
1909	제주도	1917	강서/평양 주변
1910	중국 산둥	1920	남한 일대(전남 목포 등지)
1911	제주도	1921	함북/북간도/신의주/안주/선천
	일본		영남 일대
	평남 영유		제주도
	평남 순천		평남
1913	평남 중화/영유	1922	나주/재령
	제주도/청주/평남		중국 산둥/만주(봉천)
	강원		평남
1914	평양 주변	1923	영남
1915	평양 주변	1923	중국/만주(심양)
1916	평양 주변(대동·중화·용강·강서·강동)		

여기서 보듯이 전도대는 국내의 경우 남으로는 전남·제주, 북으로는 평북·함북까지 파송되었고, 일본·만주·중국 등지까지도 진출했다. 경비는 사전에 학생들이 모금하거나 자비로 부담했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당시에 한반도의 남·북단과 국외까지 순회전도한다는 것은 여간한 각오와 열성이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 전도집회는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때로는 계몽적·민족적 성격을 띠기도 했다. 다음은 1921년 7월 제주도 전도집회의 광경이다.

同 28일까지 濟州城內를 위시하여 全島 重要지를 대대적 순회강연
 하여 도처에서 열렬한 환영과 찬성을 得하여 단원일동으로 하야금 실

60) 숭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210-251, 350-416쪽.
 61) 숭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222쪽.

로 感淚를 不禁케 할 뿐 아니라 炎天이도 불구하고 소학교의 幼年學生과 기타 老年男女에 至하기까지 십리 혹은 수십리式 迎送이 有하는 이외에 淸중은 항상 사오백명 이상에 達하여 몽매한 미신 가운데에 방황하는 촌민과 완고한 사상에 잠이 尙수 깨지아닌 유생등의 落淚悔改하는 동시에 자기의 자제를 절대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耶蘇의 진리를 신앙하기로 결심한 자가 六百命에 달하여 島內 공전의 대성황 대변동을 極한 후 일동은 실로 섭섭한 눈물의 악수를 교환하고 去 29일에 목포에 도착하여 ...⁶²⁾

이처럼 제주에서의 전도집회는 매회 원근각처에서 수백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고, 기독교와 신교육의 중요성을 함께 일깨우는 성과를 거뒀다.

1920년 3월 전남 목포의 양동교회에서는 전도강연이 문제가 되어 박형룡 등 전도대원 6명이 일경에 검거되었으며, 같은해 7월 함북 단천 예수교당에서 예정된 전도집회는 당국의 명령으로 중지되었는데 연제는 「目下 우리의 可行爲事及未可爲事」였다. 1920년 8월 평북 안주에서의 전도집회는 김태술의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왜 남에게 수치를 당하리오”란 대목이 문제되어 중지되었고, 선천에서는 전도대원 김지수를 예비구금되었으며, 당일 선천경찰서 폭파사건이 일어나자 전도대원들도 의심을 받아 구류되었다. 1921년 7월 부산진교회에서의 전도집회에서는 「인생의 삼대세력」이란 강연이 문제되어 전도대원 양재연이 구금되었다.⁶³⁾ 모든 전도집회가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전도대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신앙’과 ‘민족’을 함께 일깨우려 한 사례가 많았던 것이다. 특히 국외의 동포들에게 전도대는 크나큰 위안과 희망이 되었을 것이 틀림없다. 이같은 전도집회에서는 강연과 연주가 병행되기도 했다.

숭실대학·숭실전문에서는 수시로 각종 강연회가 열렸는데, 각계의 명망가들이 연사로 초청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2) 『동아일보』 1921.08.08 「송대생전도대 귀환」.

63) 숭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210-223쪽.

<표 7> 외부인사 초청강연회(1921-1925)

연사	일시	주최	연제	
김창제 (호수둔여학교 교감)	1921.05.15	기청 지육부	세계적 위인을 추모하며	동아1921.05.17
지용은 (미국대학 졸업생)	1923.01.23		동서문명의 차이	동아1923.02.01
조만식	1923.02.26	기청	살기 위하여 나아오는 우 리의 부르지름	동아1923.03.09
김사용 (하와이 거주 목사)	1923.05.15	기청	오인의 장래	동아1923.05.20
김창제		기청 전도부	현대청년의 결점을 논하여 猛省을 促함	동아1923.06.15
김향복			세계대세와 조선청년	동아1923.06.22
최지화	1923.10.19	기청 지육부	불교의 三大觀	동아1923.10.23
이대위 (YMCA 간사)/내쉬	1923.10.26	기청 지육부	인생향로의 지침/건설적 청년	동아1923.10.29
신홍우	1925.02.28	기청		동아1925.03.06
채필근/정인과	1925.06.12	기청 지육부		동아1925.06.06
박형룡	1928.04.04		'교육에 대한 강화회'	동아1928.04.04

여기서는 신앙뿐 아니라 ‘세계’·‘동서’·‘현대’ 등 시사에 대한 내용이 많았으며, 김창제·이대위·신홍우 등이 연사로 초빙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은 사회복음주의 또는 기독교사회주의의 성향을 띠었으며, 기독교인의 현실개혁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인사들이었다. 따라서 이같은 강연회는 학생들이 새로운 신학사조와 접촉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1929년 8월에는 제1회 관서남녀기독교청년수양회가 숭실전문에서 열렸는데, “사계에 명성있는 이들”인 윤산온(George S. McCune)·남궁혁·채필근·김준성·김활란·정인과·김창제·조만식·홍병선·박형룡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그 주제를 보면 “신의 섭리/남녀청년의 풍기문제/농촌사업이란 무엇?/物産과 청년/신구풍습의 취사/기독교와 사회주의/기독교사회주의/세계여성

운동의 추세/기독교청년의 진로/세계청년운동/우리의 기대하는 지도자” 등으로, 세계여성운동·세계청년운동과 함께 기독교와 사회주의 문제도 다뤘다.⁶⁴⁾ 이 역시 새로운 시대와 신학의 사조를 소개한 것으로, 학생들은 교회와 사회에 대한 시야를 넓힐 수 있었을 것이다. 1927년 6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숭실전문 문과생들로 조직된 연문회(研文會)에서 톨스토이의 생애·예술관·부인관·종교관·철학 등에 대한 기념강연회를 연 것도 그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⁶⁵⁾

이러한 강연회에서 때로는 민족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예컨대 1923년 숭실대학 학생기청 주최로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사용 목사는 “혁혁한 역사를 가진 우리 조선민족은 간악한 자가 우리 민족을 멸하라고 비록 우리의 결점만을 외국에 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망할 민족이 아니다. 장차 행복한 素質을 가졌스며 且 한번 망한 후에 다시 흥하는 것은 天然한 원리이다. 우리는 그간 당파를 別하고 지방을 別하는 악폐가 금일 타인의 落伍가 된 것인즉 일치단결만 하면 우리의 희망은 무궁하다”란 요지로 강연했다.⁶⁶⁾

숭실대학·숭실전문 학생들은 공개적인 전도집회·강연회에서도 이같이 민족적 색채를 띠었으며, 이밖에도 비밀리에 꾸준히 민족운동을 펼치다 일제의 탄압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100년사』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⁶⁷⁾ 105인 사건(1911)·조선국민회사건(1918) 등이 대표적 사례다. 1919년 3·1운동 때도 평양에서는 3월 1일 서울보다 앞선 오후 1시에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만세시위가 시작되었으며, 숭실대학 재학생·졸업생들도 이에 적극 가담했다.

광주학생운동 기간인 1930년 1월 21일 숭실전문 학생들은 조회가 끝나자 일제히 만세를 부르며 시위에 나섰고, 이튿날에도 만세시위를 계획하다 일경

64) 『동아일보』 1929.08.22 「숭실전문교내에서 남녀기청수양회」.

65) 『중외일보』 1927.06.13 「토翁기념강연」.

66) 『동아일보』 1923.05.20 「숭대청년대강연회」.

67) 숭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숭실편』, 435-485쪽.

의 제지를 받았다. 1월 25일 현재 일경에 검거된 평양소재 학교 학생들은 173명인데, 숭실전문⁶⁷⁾·숭실중학⁶⁸⁾으로 숭실전문 학생이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1월 29일에는 평양의 대부분 학교들이 휴교조치를 해제했으나, 학생의 절반이 검거된 숭실대학은 예외였다.⁶⁸⁾ 만세시위로 숭실전문 학생 6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고, 7명이 퇴학 28명이 징학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평양에서의 광주학생운동은 숭실전문 학생들이 주도했으며, 이는 경성의전·연희전문·세브란스의전·보성전문 등 다른 전문학교 학생들이 동맹휴학·교내시위·성명발표 등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극적인 것이었다.⁶⁹⁾ 만세시위가 진정된 2월에 들어서도 숭실전문에는 형사대가 파견되어 수색을 벌이기도 했다.⁷⁰⁾

1920년 숭실대학 학생 박기복 등 7명은 상해임시정부에 보낼 자금을 모금하다 검거되었고, 같은해 평안남도도청에 폭탄을 던진 김예진은 숭실중학을 졸업하고 숭실대학에 재학 중 독립운동에 투신한 인물이었으며, 숭실대학 출신으로 독립운동을 벌이다 체포된 이창해는 1922년 출옥했다.⁷¹⁾ 1928년에는 동교강당에서 열린 신입생환영회 석상에서 학생일동이 애국가를 부른 것이 문제되어 사회자 김형규가 구금되고 사회적 이목을 끌었으며,⁷²⁾ 1929년에는 숭실전문 출신의 공명단원 김정연이 군자금을 마련하다 체포되었다. 1932년에는 숭실전문 기숙사에 격문이 살포되어 일경을 긴장시켰고,⁷³⁾ 1934년에는 김현승·김조규 등 숭실전문의 ‘청년시인’을 비롯한 수명이 검속되었다.⁷⁴⁾ 같은해 남경군관학교사건으로 정삼현 등 숭실전문 학생 수명이 검거되었으며,⁷⁵⁾ 1936년에는 경찰들이 숭실전문·숭실중학 기숙사를 포위하고 학생 6명

68) 『중외일보』 1930.01.29 「평양의 각학교 순차로 개교」.

69) 한규무, 『광주학생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31, 156쪽.

70) 『매일신보』 1930.02.27 「고보생십이명 인치」.

71) 『동아일보』 1922.01.09 「숭실대학생으로 조선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었던 이창해씨 만기출옥」.

72) 『동아일보』 1928.04.29 「숭실생취조」; 『동아일보』 1928.05.04 「승전○○가문제 갈수록 확대돼」; 『중외일보』 1928.05.08 「禁歌부른 학생 검사국으로」.

73) 『동아일보』 1932.01.23 「평양격문용의 兩名을 검거」.

74) 『동아일보』 1934.05.03 「숭실전문재학중의 청년시인들 검속」.

을 검거했다. 이들은 “적색사상을 연구”하는 “모종의 비밀결사”로, “대개가 예수교의 목사나 장로들의 자제”로 알려졌다.⁷⁵⁾

이처럼 송실대학·송실전문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은 물론 꾸준히 비밀항일투쟁을 계속했는데, 이 역시 을사조약 반대투쟁과 신민회 결성 같은 평양의 기독교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송실전문이 민족과 민중에게 끼친 또다른 공헌은 1931년 농과(農科)의 설치다.⁷⁷⁾ 한국인의 대부분이 농민이던 일제강점기에 농촌문제의 해결은 정치적 독립 못지않게 중요한 민족적 과제였다. 당시 농업전문교육기관은 관립 수원고등농림학교밖에 없었는데, 송실전문에 농과가 설치되면서 192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기독교 농촌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았다. 특히 농촌운동지도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현실에서 송실전문 농과는 이같은 갈증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한 세간의 기대는 다음의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 朝鮮에 잇서서 貢獻이 가장 큰 學校로서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基礎가 더욱 鞏固하야 모든 것이 時代順應에 適合하도록 改善에 改善을 더하야가든 中에 經七八年前에는 朝鮮新教育令에 依하야 崇實 專門學校로 改正한 後 文科와 農科의 兩科를 두고 만흔 青年을 培養하는 中인데 內容의 充實이라든지 其他 設備의 完全함이 어느 專門學校보다지 안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學校의 特色을 나타내일 것은 이 앞으로 擴張計劃에 잇는 農科이다. 특히 우리 朝鮮事情에 맞는 農村指導者의 人口을 養成하야 荒廢한 朝鮮農村復活의 일군을 내게 한다 하니 어찌 攢賀치 아니할 바리오. 우리 西朝鮮一帶에 잇서서 아니 우리 온 朝鮮에 큰 幸福이라 하지 아닐 수 업다. 그리하야 우리는 過

75) 『매일신보』 1934.11.24 『종로서고등계원 송전생을 검거』; 『조선중앙일보』 1934.11.25 『모처에서 단서포착』.

76) 『조선중앙일보』 1936.05.28. 『平壤署員 冒雨活動』; 『조선중앙일보』 1936.06.24. 『평양학생사건은 적색독서회관계』.

77) 송실대학교100년사 편찬위원회, 『송실대학교 100년사(1): 평양송실편』, 284-291쪽.

去에도 만히 이 學校를 信賴하였지마는 今後에 더욱 企待와 渴望을 만히 가지는 바인데 더욱이 熱誠이 만코 手腕이 敏活한 尹山溫 新校長을 맞게 되었스니 此所謂 適方適所이다.⁷⁸⁾

이때는 아직 농과가 총독부의 인가를 받기 이전이지만, ‘농과강습소’의 형태로 이미 농촌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후 농과가 정식으로 설치되자 “가장 時宜에 適한 일로 앞으로 朝鮮社會를 爲하여 多大한 貢獻이 잇을 것을 믿는다”는 세간의 큰 기대를 받았다.⁷⁹⁾

농과의 교수진으로는 농업전문선교사 루츠(D. N. Lutz)·모우리(E. M. Mowry)와 미국에서 공부한 이훈구, 일본에서 공부한 김호식·김응룡·명재익 등이 포진했다. 숭실전문 농과는 장로교 농촌부와 제휴하여 전국을 순회하는 농사강습회의 개최, 고등농사학원의 설립, 『농민생활』의 발간·보급 등의 활동을 펴는 한편 평양 및 인근에 5개의 실습농장을 설치하여 실질적인 농촌경제의 회생에 노력했다. 그리고 숭실대학 출신 배민수와 유재기가 장로교 농촌부의 임원을 맡아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기독교 농촌운동은 ‘개량주의’란 세간의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그 성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민족운동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사례도 적지않게 발견된다. 특히 배민수·유재기 등이 주도한 장로교 농촌운동이 그러하며, 그 때문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기도 했으며, 결국 1937년 ‘농우회 사건’으로 배민수는 해외로 도피하고 유재기는 일경에 체포되면서 장로교 농촌부가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배민수·유재기가 숭실전문 농과를 중심으로 전개한 농촌운동은 다른 계열(YMCA·YWCA·감리교)과 비교할 때 가장 기독교적 색채가 뚜렷이 나타났다. 농사강습회나 고등농사학원 교육에서는 기도와 설교, 성경공부가 반드시 포함되었으며,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농민의 정신수양과 의식개발을 강조했다.⁸⁰⁾ 이는 ‘신앙’와 ‘민족’을 함께 중시

78) 『동아일보』 1929.06.14 「(지방논단)용성한 승전: 윤산온교장을 맞고서(평양 일기자)」.

79) 『동아일보』 1931.03.08 「농과전문설립」.

80) 한규무, 『일제하 한국기독교 농촌운동: 1925-193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7 참조.

해은 평양과 송실의 기독교적 전통이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일제강점기 송실대학·송실전문 중심의 기독교 민족운동 사례로서 특기할 만하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난삽하게나마 평양지역의 기독교적 전통이 무엇이며, 그것이 일제하 송실대학·송실전문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를 살펴봤다. 이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기독교 명문사학 송실대학의 위상과 의의를 밝혀보려 했으나,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 것 같다. 또 기독교적 전통과의 관련에 주목하나 보니 논리의 비약도 없지 않았다.

평양지역의 기독교는 한국기독교 역사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오래된 기독교 선교의 역사, 교세의 급속한 성장, 교인들의 진취적·자립적 태도, 장로교·감리교의 연합활동, 투철한 신앙, 보수주의 신학, 적극적인 민족운동 참여, 활발한 학교 설립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같은 특징은 평안도·황해도 등 관서지방에 공통되는 것이나, 특히 평양에서 선명히 나타났다. 그리고 이같은 특성이 송실대학의 설립과 운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송실대학의 설립에는 북장로회·북감리회가 참여했으나 평양교인들의 절대적 관심과 후원도 있었다. 그 교육과정을 보면 매우 다양한 인문과학과목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시켰고, 졸업생 중 상당수가 교역자나 교원으로 진출한 점에 비춰볼 때 교인·학생들에게 신앙과 지식뿐 아니라 인문교양을 전달하는 데도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일제강점기 송실대학·송실전문 학생들은 국내는 제주도, 해외는 중국·만주까지 순회전도대를 파견했으며,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몽적·민족적 성격을 띠기도 했다. 또 수시로 명사들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그 중에는 사회복음주의·기독교사회주의 계통의 인물들도 있었

다. 평양의 장로회신학교는 한국 보수주의신학의 본산이었지만, 이같은 강연회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서구의 신학과 사상을 소개받을 수 있었다.

숭실대학·숭실전문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한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민족운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숭실대학·숭실전문은 많은 민족운동가들도 배출하여 민족운동에 기여했으나, 그 때문에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기도 했다. 이들의 활동은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수주의적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에 나선 사례로서 주목된다.

특히 1931년 농과(農科)의 설치는 큰 의미가 있다. 1920년대 중반부터 한국기독교계에서는 농촌운동을 전개했으나 이를 위한 지도자와 전문인력, 교육 시설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나 숭실전문 농과의 설치로 기독교 농촌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그 출신들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처럼 숭실대학·숭실전문은 설립 이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족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신앙'과 '민족'을 함께 중시하면서 '자립'과 '연합'을 추구했다. 그같은 역사와 전통은 숭실대학은 물론 한국의 많은 기독교계 대학들이 이어받아 지켜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이 논문에서는 문학·음악·체육 등 방면에서 숭실대학·숭실전문 학생들이 어떤 활동을 벌였으며 그것이 평양의 기독교적 전통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살펴보지 못했다. 또 숭실과 한국을 위해 노력한 여러 선 교사들의 공적도 다루지 못했다. 이같은 한계는 차후 또다른 기회에 보완하고자 한다.